

문화예술 | Latin American Culture

축구와 문화: 브라질 사회 발전에서 축구의 역할

카를로스 아우베르투 마시무 피멘타

브라질 학계에서 축구가 연구 주제로 자리매김한 것은 21세기 초의 일이다. 이로써 라틴아메리카 전역의 다양한 연구소와 연구팀들에 의해 1980~90년대에 시작된 노력들이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¹⁾ 공공 문화유산으로서의 축구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상징생산, 노동과 관련된 연구의 장에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학문 분야(사회학, 인류학, 정치과학, 심리학, 경제학, 역사학 등)에서도 중요성을 지닌다.

축구는 프로선수 지망자이든(Pimenta 2006) 팬이든(Toledo 1996; Pimenta 1997) 브라질의 젊은이들을 통합시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축구는 사회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도 중세에서 오늘날의 산업사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류가 경험한 수많은 변화를 설명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²⁾

축구와 문화에 대한 고찰에 있어 흔히 존재하는 믿음은 제도로서의

1) CLACSO(아르헨티나), 브라질 국립박물관(히우지자네이루), 브라질가톨릭대학교(PUC), 상파울루대학교(USP)의 연구원들, 사회학과 인류학 분야에서 개최된 수차례의 라틴아메리카 학술회의에서 이루어진 노력과 그 결과물들을 참고할 것.

2) 이와 관련한 참고문헌으로는 『세기의 쇼, 축구』(Futebol Espetáculo do Século, 1999), 『골의 위험성: 라틴아메리카의 스포츠와 사회에 대한 연구』(Peligro de Gol: estudios sobre deporte y soceidad en América Latina, 2000), 『축구학: 라틴 아메리카의 축구, 정체성, 폭력』(Futbologías: fútbol, identidad y violencia en América Latina, 2003) 등이 있다.

축구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브라질 문화의) ‘비밀’, ‘수수께끼’, 오늘날의 기술 및 정보통신 동향 등을 비롯한 현대 브라질 사회가 걸어온 ‘길’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은 축구가 특정 사회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는 관념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고 축구가 특정 경제개념 혹은 사회정치적 조직 방식의 이해와 결탁하거나 이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아르헨티나의 인류학자 에두아르도 아르체티(Eduardo Archetti)는 편저 『스포츠와 사회』(Deporte y sociedad) 서문에서 그러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풀어놓는다. “스포츠는 단순히 인간의 핵심적인 면모를 드러내거나 특정 제도에 존재하는 권력구조들을 반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스포츠는 근본적으로 사회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Archetti 1998, 12). 즉, 그는 놀이를 뛰어넘는 또 다른 관계들의 생산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서의 축구를 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축구 연구는 브라질 사회가 겪은 변화와 관련된 제 연구들을 위한 훌륭한 실습이 될 수 있다. 축구 연구가 일상의 삶과 관계된 여러 가지 영역들 중에서도 주관적·이념적·규율적 영역, 여가·폭력·권력·저항·문화·모순·정체성의 영역, 경제적·기술적 영역, 사회와 스포츠 간 관계 연구를 위한 실험장일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르체티의 책에서 축구는 다정체성(múltiplas identidades)의 형성, 구축, 구성을 위한 잠재력을 갖춘 도시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는 이런 시각에서 축구라는 존재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최소 세 가지 측면을 덧붙인다. 첫째는 소비재로서의 축구, 둘째는 스포츠 이벤트의 현대화, 셋째는 대도시에서 일상생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도시공간적 조정이다(이러한 조정은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변화에 직면한 젊은 층의 행동양상을 이리저리한 방식으로 재정립시킨다).

축구를 소비재로 다루는 관점에 대해서는 잠시 역사에 눈을 돌려 브라질 축구의 제도화, 선수들의 프로화, 이른바 ‘기업 클

럽'(clube-empresa)이라고 일컬어지는 클럽의 경영 전문화라는 세 단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브라질 축구사에서 축구의 기원은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다. 브라질에 축구가 들어온 경위에 관해서도 세 가지 설이 있다. 1894년 찰스 밀러(Charles Miller)를 통해 상파울루에 도입되었다는 설, 1897년 한스 노블링(Hans Nobling)에 의해 역시 상파울루에 들어왔다는 설, 1878년 크리메이아(Criméia)의 선원들이 히우지자네이루에서 처음 축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설이다. 다만 스코틀랜드인 찰스 밀러가 축구팀을 창단하고 경기를 조직하여 축구의 전파 및 제도화에 앞장선 일은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사실이다.

본고에서 이러한 논쟁을 깊이 파헤칠 생각은 없다.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일련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화로 점철된 시기였다는 점이다. 그 같은 변화는 노예제 폐지(대농장의 흑인 해방), 브라질공화국 선포, 유럽 이민, 실증주의 사상의 보급, 영국식 산업화 과정 이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시의 급속한 팽창 현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축구가 시작된 것은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였다. 당시의 축구는 근본적으로 외국인과 부유한 가정의 즐기는 유럽 스포츠였다. “영국인, 럭셔리한 사람(*grã-fino*), 백인만”이라는 말이 있듯이 배제에 입각한 엘리트주의적이고 귀족주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Rufino dos Santos 1981, 11).

1902년에는 브라질 최초의 축구대회가 상파울루에서 열렸다. 경기는 거칠고 폭력적이었으며, 고성, 발길질, 위스키가 난무했다. 오로지 영국인, 유럽인, 브라질 상류층만이 경기에 참가했다. 관중석은 파리풍으로 한껏 치장한 럭셔리한 사람들과 양갓집 규수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다. 골키퍼, 풀백, 인사이드 라이트, 레퍼리 등 경기 용어는 모두 영어에서 차용한 것이었다. 경기 중 부상이 발생할 경우, 부상을 입힌 선수는 반드시 영어로 ‘I’m sorry’라고 해야만 그 사과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1902년 상파울루에서 처음 치러진 축구 경기 장면 (출처: <http://www.abril.com.br/>)

그렇다면, 축구는 어떻게 브라질에서 대중화되었는가? 이 현상이 브라질 문화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920년대는 우리가 이 과정, 즉 축구 경기의 대중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생산양식에 대한 개념이 일반화되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공장들은 축구 경기를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나갔고, 흑인·노동자·서민을 참여시켰다. 또한 축구 경기가 소수 엘리트층이 즐기던 아마추어 경기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프로 경기로 변모한 것도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였다. 거칠고 시끄럽고 완성도가 떨어지던 경기는 자유분방하고, 천재적이며, 매력적인 세련된 경기로 변모했다. 이제 브라질 축구는 예술과 춤, 카포에이라로 묘사되기에 이르렀으며, 흑인과 물라토의 신체적 표현이 되었다.³⁾ 축구를 이렇게 대중적이며 빈곤층, 혼혈, 흑인에게도 열린 스포츠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저항과 갈등, 대립은 결코 만만치 않았

3) 축구실력이 뛰어난 비흑인 선수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브라질의 축구 스타일에 흑인들이 기여한 문화적 가치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참조: Mário Filho(1964).

다.

사회가 야기한 가치 변화와 더불어 국가도 (무계획적이고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도시화와 산업화 논리에 입각해 경제발전 정책에 착수했다. 이 논리 속에서 국가는 일련의 문화 적응(adaptações culturais)의 대중화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른바 신국가(Estado Novo) 건설을 지원하고자 했다. 신국가란 1930년경 브라질에 유입되기 시작한 서구 근대성의 이상(理想)을 말한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일은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노동법집전(勞動法執典, CLT: Consolidação das Leis Trabalhistas)과 사회보장법을 밀어붙였고, 국가의 행위, 사회운동, 그때까지만 해도 농촌, 대지주, 대농장 위주로 돌아가던 생산 시스템의 합리화를 꾀했다.

그 시기에 노동자 계급이 축구를 좋아했다는 점이 축구의 대중화에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시 대중은 당시 출현하던 클럽들과 일체감을 느꼈고, 실력과 자질을 갖춘 선수에게는 신분상승, 존경, 사회적 인정의 가능성이 생겼다. 1930년대에 축구경기의 대중화는 축구선수의 프로화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축구가 민주적 공간의 제도화를 상징한다고 본다 (Lever 1983; Da Matta 1982). 축구는 애초에 여가와 단련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브라질의 특수한 경험에서는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가르쳐 준 최초의 교사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그들의 견해이다. 축구를 그저 단순한 놀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경쟁, 개인화, 계급, 경제, 불평등의 문화적 구조 등등 상이한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얽혀있는 것이 바로 축구인 것이다.

1964년부터 1988년 사이에 브라질의 군사독재정권은 지배권력 강화 차원에서나 특권층 위주의 정치경제모델 선전의 차원에서 축구를 이념적 도구로 사용했다. 브라질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발전 기획을 구상할 때 축구는 그 같은 기획을 보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정체성 확립에 기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의 선수 시절 모습 (출처: <http://www.zofooty.com/>)

여할 수 있는 요소들 중 하나로 상정되었다.

그러한 믿음에 입각해 군사정권들은 다수의 축구 경기장을 건설하고 경기를 후원했으며, 클럽과 연맹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스포츠 복권을 발행했다. 즉, 축구를 중심으로 대중이 결집하자 군사정권은 국가통합의 도구로서 축구에 승부수를 걸게 된 것이다. 1970년대의 축구황제 펠레는 당시 브라질이 겪던 독재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발언을 했다. “브라질에 독재란 없다. 브라질은 자유국가이며 행복의 땅이다. 우리는 자유로운 국민이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무엇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인지 잘 알고 있으며, 관용과 애국심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Caldas 1994, 49).

민주화로(1985-1988) 군사정권이 종식되면서 축구 또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기업 클럽이라 불리는 클럽들의 경영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축구 전문화에 있어서 새로운 전망과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효율성

과 시장논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축구에 대한 기존 인식들과는 다른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 전과는 다른 정치경제적 개념과 함의도 제시되었다.

축구라는 제도, 축구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구축하려는 끊임없는 시도, 브라질의 사회정치적·경제적 현실 간의 암묵적 고리들이 점차 분명해지게 되었다. 소위 말하는 세계화 과정이 무역장벽 개방, 시공간의 변형, 경제의 국제화, 상표의 확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이다. 축구는 특정 시대와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경제·문화 담론들을 활성화시키고 동화시킨다. 그리고 그저 스포츠 경기에 불과한 것도 순수하기만 한 것도 아니어서 경기장과 선수, 축구공, 골대를 넘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 및 의도와 결합되게 마련이다.

필자가 스포츠에 대한 브라질에서의 새로운 접근방식과 행정에 따른, ‘현대화를 이끄는’(modernizadora)⁴⁾ 변화들을 폄훼하거나 과대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과정이 사회경제적 발전 및 관광과 도시의 발전의 지렛대가 될 경향들의 반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이 같은 발전은 전 지구적인 유연한 자본(flexible capital)의 논리와 얽혀 있으며, 1980년대에 경기, 선수, 클럽 관리, 프로축구 연맹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겨나면서 시작되었다. 현대화라 부르는 그것은 우리 시대의 민간기업들과 접목되면서 마케팅의 특징을 획득하게 된다.

축구의 소비재화 현상을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검토하자면, 축구의 재편에 매진하는 기업들은 사회를 여가·오락·소비 사회로 재편하려는 이해관계들과 갈등을 빚지 않는다. 오히려 자체적으로, 또 축구에서 모든 요구 가능성을 보는 대중매체와 기업들에 의해 강화된다. 대표적인 예로 13클럽(Clube dos 13) 운동,⁵⁾ 지쿠법(Lei Zico), 펠레법은 브라질축구연

4) ‘현대(moderno)’ 라는 용어에 부여된 의미는 1980년까지의 축구 행정관리방식과 축구-기업(futebol-empresa)의 본격화 간의 대비 차원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전통적 축구 경영방식의 반대로서의 ‘현대’ 라는 의미에 국한된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Pimenta(1999; 2006: 42-58)를 참조하라.

5) 브라질 축구의 운명과 대회 조직 방식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13개 클

맹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타파하고 자유시장 경제원리가 통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스포츠마케팅, 클럽 민영화, 기업클럽, 선수들의 계약 자유(이른바 ‘자유이적법’을 뜻하는 Lei do Passe Livre라고도 불리는 펠레법을 통해 규정), 브라질축구연맹의 선거 시스템 변경은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인 예다.

한계도 있고 실제 변화도 야기한 지쿠법과 펠레법에 기초한 축구의 현대화에는 상업적 기준과 기업논리에 따라 프로축구 클럽의 활동을 조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조치는 도시, 경기장, 문화상품 소비를 위한 경제적 능력에 급격한 변화가 뒤따라야만 효과를 볼 것이다. 아직은 많은 장벽이 감지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 문제에 대해 고찰하면서 도시 문제와 도시라는 개념이 흥미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사법적 성격의 조정(가령, 축구팬 현장)과 정치적·경제적 성격의 조정(클럽-마케팅-시장-대중매체)의 장에서 프로축구를 둘러싼 제반사항을 현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정들 외에도 도시가 정치적 행위자로 우월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 하에서 공적 개념과 사적 개념의 긴장이 드러나게 된다. 한편으로는 관료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향한 비판이, 또 한편으로는 민간부문의 경제적·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월드컵 개최로 탄력을 받은 브라질 사회의 현대화는 바르셀로나와 뮌헨 등, 정치적 행위자로 화하여 도시와 도시성(urbanidade)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도시 사례들을 떠올리게 된다. 여기서 도시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이 운명 공동체로 혼종적 관계를 맺는 일종의 ‘기업 도시’(cidade empresa)이다.

법이 1980년대에 진행한 운동. 주요 의제로는 초상권 강화, 연방 보조금, 클럽 재정 평준화 도모 등이 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개막식 장면 (출처: <http://thecairopost.com/>)

달리 말하자면,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도시(히우지자네이루, 상파울루, 포르투알레그리, 벨루오리존치, 쿠리치바 등)는 대형 스포츠행사의 유치와 브라질 축구에 도입된 현대화 과정을 위해 갖춰야 했던 자격요건들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했다. 그리하여 도시는 이제 그 같은 상황을 활용함으로써 도시공간에 존재하는 사회문제들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되는 일련의 계획 내에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 여기서 계획이라 함은 도시 자신은 물론 도시가 속한 지역⁶⁾의 권한의 인정은 물론 지속가능성에서 발생한 개념들까지도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일겠다는 전망을 아우른다. 따라서 월드컵 개최에 투입된 공적 자본 및 민간 자본은 상당했고 브라질 현실로서는 매우 값비싼 대가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한편 소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려는 브라질의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 박차를 가하기도 한다. 결국 단순히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의

6) 브라질은 행정적으로 크게 5개 지역으로 나뉜다. —옴긴이

미 있는 도시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업 도시라는 구상이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개입은 사회문화적 층위에서 새로운 태도와 규범을 파급시키고, 이에 따라 스포츠의 장에 '전통 대 현대'라는 긴장을 야기한다. 또한, 축구라는 제도의 조직과 구조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같은 개입은 도시의 생활양식, 팬 활동과 축구 경기, 나아가 소비행위에 또 다른 의미들을 부여한다.

여기서 '현대화'는 여가생활, 선수양성 과정, 다른 스포츠 종목의 향유, 예술축구 혹은 브라질 최고의 대중 스포츠라는 가치평가의 현재화(atualização)를 뜻한다. 이러한 동향이 전통적 사회화의 종식 혹은 서민의 축구교실 참여 감소 혹은 경기관람 회수 감소를 필연적으로 앞당기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동시대 세계들(mundos contemporâneos)로 통하는 압호, 즉 소비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는 제약과 제한이 따를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

이는 마크 오제(Marc Augé 1997)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현상들(대중매체, 소통방식, 정치적 의례, 사회적·상징적 재현의 재의미화 등)의 해석을 위해 '동시대 세계들'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비록 이것이 축구계의 사회문화적 관계들로부터 구성된 이론은 아니지만, 이에 의거해 사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화의 영역에서 개인적 관계와 집단적 관계는 소비행위를 통해 형성된다는 전제가 요구된다.

기업 논리와 시장 논리에 무게를 두면서 오늘날 그 결과들이 산출되고 있다. 합법적이고 구조화된 공간, 즉 용인된 공간으로 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을 잠재력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브라질 대도시들의 경우, 대규모 대회 개최를 통해 혜택 받지 못하던 사람들과 그룹들을 통합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던 이들의 무능력이 문제이다. 기반시설 부족으로 비합법적이고 비구조화된 장소들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축구가 공공문화 유산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온전한 의미에서의 공



브라질 국가대표 축구팀을 응원하는 사람들 (출처: <http://latino.foxnews.com/>)

공장소들의 공적 사용을 장려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다시 말해, 비록 시장의 지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모두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편향된 의도가 시장의 수사학을 넘어서는, 그리고 또한 세계 도시 (cidade-global), 기업 도시, 정치 도시, 기업 클럽 등의 개념으로 수렴되는 새로운 정치적·사회적·경제적·공간적·상징적 행위자들이라는 수사학을 넘어서는 요소들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스펙터클, 공연, 소비 등으로 이벤트화된 축구는 브라질 문화 요소들의 특징과 미학을 용인하기는 하지만 비효율성, 비합리성, 부정적 결과, 이익 부재와는 양립할 수 없다.

과연 축구가 경기장, 도시, 축구라는 제도 자체의 현대화 의도와 맞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포함시킬지 말지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현대화 의도들이 우리 문화에 잠복해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시키리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스펙터클’ 연출을 위해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차용하여 소속감, 인정(認定), 낯섬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축구의 현대화에 수반된 요구사항들은 철저히 스펙터클, 소비능력, 상표, 대형행사의 논리를 중심으로 한 기획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참고문헌

- ALABARCES, Pablo (2000). *Peligro de Gol: estudios sobre deporte y soceidad en América Latina*. Buenos Aires, CLACSO, 2000.
- ALABARCES, Pablo (2003). *Futbologías: fútbol, identidad y violencia en América Latina*. Buenos Aires: CLACSO, 2003.
- ARCHETTI, Eduardo (1998). “Prólogo”. In: Alabarces, Pablo, Di Giano, Roberto y Frydenberg, Julio (comps.). *Deporte y Sociedad*. Buenos Aires: Eudeba.
- AUGÉ, Marc. *Por uma Antropologia dos mundos contemporâneos*. Rio de Janeiro: Bertrand Brasil, 1997.
- CALDAS, Waldenir (1994). Aspectos Sociopolíticos do Futebol Brasileiro. In: *Revista USP*, num 22. São Paulo: USP.
- COSTA, Márcia Regina da et alli (1999). *Futebol, Espetáculo do Século*. São Paulo: Musa.
- DA MATTA, Roberto. *Universo do Futebol: esporte e sociedade brasileira*. Rio de Janeiro: Edições Pinakotheke, 1982.
- LEVER, Janet (1983). *A Loucura do Futebol*. Rio de Janeiro: Record.
- PIMENTA, Carlos Alberto Máximo (1997). *Torcidas Organizadas de Futebol: Violência e auto-afirmação, aspectos da construção das novas relações sociais*. Taubaté, SP: Vogal.
- PIMENTA, Carlos Alberto Máximo (1999). “As Transformações na Estrutura do Futebol Brasileiro: o fim das Torcidas Organizadas nos estádios de futebol”. In: Costa, Márcia Regina da et alli (comps.). *Futebol: espetáculo do Século*. São Paulo: Musa.
- PIMENTA, Carlos Alberto Máximo (2006). *Sociologia da Juventude: futebol, sonho, paixão, frustração, violência*. Taubaté, SP: Cabral Editora e Livraria Universitária.
- RODRIGUES FILHO, Mário (1964). *O negro no futebol brasileiro*. Rio de Janeiro: Civilização brasileira.

RUFINO DOS SANTOS, Joel (1981). *História Política do Futebol Brasileiro*. São Paulo: Brasiliense.

TOLEDO, Luiz Henrique (1996). *Torcidas Organizadas de Futebol*. Campinas, SP: Autores Associados/ANPOCS.

[김정아 · 양은미 옮김]

카를로스 아우베르투 마시무 피멘타(Carlos Alberto Máximo Pimenta) - 브라질 이타주바연방대학(UNIFEI)에서 발전기술사회(DtecS) 대학원 프로그램 교수

김정아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재학

양은미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